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현대차 투자협약 후속조치 본격 가동

전북도, '투자 전담 공무원 지정·책임제' 운영 실투자 전환 위한 6개 분야 윈스톱 대응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체결한 새만금 9조원대 투자협약이 최종 실무자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 실행체계를 즉시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대차가 계획 중인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로봇 제조 공장, 수소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착공과 가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력 수급과 인허가, 규제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복합 현안을 통합 관리해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대기업 투자 지연과 무산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책임 행정을 강화한다.

전담 조직은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미래첨단산업국장을 총괄로 둔다. 로봇 분야는 자동차산업팀장 수전해 플랜트는 수소산업팀장 재생에너지는 RE100팀장 AI데이터센터는 디지털정책팀장, 수소스마트도시 새만금개발관광팀장 소통·기후는 기업유치팀장이 각각 맡는다.

각 팀장은 사업별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돼 인허가와 부처 협의, 인프라 지원 상황을 점검한다. 주간회의를 통해 정점을 공유하고 단장 중심으로 조정한다.

사업 협업은 현대차 실무진과의 '핫라인'으로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사업별 타임타이틀을 마련해 단계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투자계획 수립 단계부터 인허가 완료 시점까지 밀착

지원한다. 기업은 전담팀장을 통해 전력·용수·부지·교통 등 기반시설 관련 사항을 일괄 상담받을 수 있다. 필요 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협의해 절차를 단축한다.

전북자치도는 실증특구 지정과 제도 개선, 규제 특례 발굴도 병행한다. AI

데이터센터와 수전해 플랜트의 전력·용수 확보를 지원하고, 로봇 제조 공장과 연계한 지역 부품기업 참여 확대 및 수소 산업 생태계 확장을 추진한다.

윈스톱 대응체계는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개발청, 환경청 등과 수시 간담회를 열어 인허가와 인프라 문제를 통합 관리한다. 애로사항은 전담팀장이 접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투자 실행은 지역경제에 활력

을 더할 전망이다. AI·수소·로봇 산업 집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RE100 기반 구축으로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인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현대차 투자가 실제 착공과 가동으로 이어지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담 공무원 책임제와 윈스톱 지원으로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을 미래산업 중심지로 육성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과 체결한 새만금 9조원대 투자협약이 최종 실무자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 실행체계를 즉시 가동한 가운데, 현대차 투자 전담 조직의 단장인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통합 원광대' 공식 출범

국내 최초 4년제 일반·2년제 전문학사 통합 모델 무학과 광역계열 선발·스마트+허그케어 체계 운영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가 올해 3월 1일자로 완전 통합을 이루고 통합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 체제로 공식 출범했다.

이번 통합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구조 혁신 사례로, 국내 최초의 4년제 일반학과와 2년제 전문학사 통합 모델이라는 점에서 고등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 개선과 학사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장관상을 수상하며 국가 차원의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통합을 통해 종합대학의 학문적 인프라와 원광보건대가 축적해 온 40여 년간의 보건·실무 특성화 역량이 결합됐으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 특례를 활용해 4년제 대학 내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을 공존시키는 하이브리드 학사 구조를 국내 최초로 구현했다.

임상병리·물리치료 등 보건계열은 4년제로 전환해 연구·전문성을 강화하고, 외식조리·미용피부관리·호텔관광·웰니스케어·전투부사관 등 현장 수요 중심 학과는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을 그대로 유지해 실용성과 경쟁력을 높였다.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대학30 사업과 연계한 파격적인 학사구조 개편으로, 2026학년도부터 전체 입학정원의 68% 이상을 전공 구분 없는 '무학과 광역계열'로 선발하



원광대학교 전경

고, AI 기반 진로 설계 시스템(Smart)과 전담 코디네이터·전공 지도교수의 밀착 상담(Hug)을 결합한 'Smart+Hug 케어'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농생명·바이오, 디지털융합 등 광역계열 입학생이 생명산업 분야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브릿지 MIX(Micro Degree)' 제도를 도입해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박성태 총장은 "통합 원광대 출범은 단순한 대학 간 결합을 넘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제시"라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토대로 대한민국 생명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명문 사학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원광대학교는 지난 3월 입학식을 통해 신입생 4,089명을 맞이했으며, 양교의 교육 인프라와 특성화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 선택권과 학습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생명산업 혁신'이라는 글로벌 비전을 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 모델을 고도화해 통합 대학의 시너지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공공·민간 건설시장 전반 전북지역 업체 참여 확대 조기 발주·인센티브 확대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상반기 내 도내 공공 건설공사의 65% 이상(3조142억원)을 집중 발주·집행하고,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61건(3조5,047억원)에 대해 분기별 참

여현황을 관리해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적극 유도한다.

또한 대형 신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 협력업체 등록을 지원하고, 지역 자재와 인력 사용 확대를 통해 현장 중심의 수주 지원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도내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토목관리와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를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율터 민간공사 하도급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개

정을 추진해 지역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시·군 단위 기반 강화도 병행한다. 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조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분할발주 제도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활성화 우수 시·군 인센티브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해 성과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 분야 참여 확대도 적극 유도한다. 투자기업이 공장 신축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최대 5%까지 추가 가산하고, 도

지역어 공공주택 건설 시 지역업체·자재·장비 활용 실적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까지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공공 중심 지원 정책을 민간 영역까지 확장하고, 지역업체 참여 기반을 다변화해 지역 건설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역업체 참여 기반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